

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4 columns: EBS1, EBS2, EBS3, EBS4. Rows list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4 column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플러스3, EBS플러스4. Rows list various EBS Plu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5일(음 1월 15일 庚辰)

Table with 2 columns: 운세 (운세) and 해설 (해설). Rows list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김수현·노희경 작품 출연하고 싶어요”

중영한 드라마 ‘편지’ 신하경 역 김아중

“마지막 회를 보면 드라마와 진짜 안녕일 것 같아서 (중영 열흘이 지난) 어제야 봤어요.” SBS TV 드라마 ‘편지’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 김아중(33)의 말에서는 드라마 중영에 대한 아쉬움이 강하게 묻어났다.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아중은 “최대한 힘을 빼고 간결하고 조화롭게 연기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아중은 조재현과 김래원, 박혁권, 최명길 등 저마다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배우들 틈바구니에서 자기 몫을 충실히 하느라 애썼다. 그는 현장에서 세삼 느낀 것이 많은 모양이었다.

“조재현 선배는 장면 해석이나 인물 표현이 정말 정확하게 결코 대충대충 연기하지 않더라고요. 박혁권 선배는 연기를 정말 즐기세요. 후배들과 함께 해석하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중간 중간 어려울 때 고민 상담도 해주셔서 많이 의지가 됐어요. 최명길 선배는 에너지가 넘쳐요. 사극을 많이 해서 상대와 대립하는 것에 많이 단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발음이트 김정 이든 대사는 NG가 가장 적었던 분이예요.”

김아중은 남편 박정환 검사로 등장했던 김래원에 대해서는 “김래원 선배에게서는 간결하게 연기하는 내공을 봤다”고 밝혔다.

김아중은 자주 호흡을 맞췄던 검사 이호성 역의 온주완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연기는 자기 캐릭터에 대한 생각이 정리돼야 가능하잖아요. 사전에 분명히 상황을 정하고 움직이는 캐릭터는 연기하기 쉽지만, 이호성 캐릭터는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온주완 씨가 곤경에 빠질 법도 한데 짧게 고민하고 연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력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딸 예린 역을 맡았던 김지영에 대해서는 “완벽한 여배우”라고 치켜세웠다.

“지영이는 본인 의견을 현장에서 피력할 줄 아는 완벽히 주체적인 배우였어요. 아무도 지영이를 아역배우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김아중은 “각자 다양하게 대본을 해석해 연기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봤다”면서 “연기가 정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강조했다.

“편지”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인물들 간에 배신과 결탁이 이어지면서 적과 친구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야기 전개가 워낙 빨라서 인물들의 관계도 급변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하경 캐릭터가 유난히 굵직했죠. 신하경은 다른 캐릭터처럼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직진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실패하거나 고뇌하는 인물이었어요. 박정환과의 거리도 좁혀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통에 그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김아중은 ‘싸인’ 이후 약 3년 만에 ‘편지’로 복귀했다. 작품을 매우 신중히 고르는 편이라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그 와중에 놓친 흥행작들도 많았다.



김아중은 “잘할 수 있는 작품,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작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좋은 작품을 많이 놓쳤다”고 털어놓았다.

“제가 놓친 드라마들이 잘 될 줄 몰라서 선택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작품이나 하는 점이 제게는 제일 중요했어요. ‘미녀는 괴로워’ 이후 저렇게 행운을 독차지한 배우가 오롯이 자기 몫을 다할까 하는 시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김아중은 “그래도 후회는 없다. 제가 놓친 작품들에 출연했더라도 더 잘했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면서 싱긋 웃었다.

“편지”로 안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김아중의 계획은. “제대로 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를 하고 싶어요. 꽃미남 스타와 등장하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요. 하하하. 김수현, 노희경, 김은숙 같은 여성 작가들과 일해보는 것도 바랍니다.”

‘킬미힐미’ 팬들 아동학대 피해자 돕기 모금운동

일주일만에 700만원 모아

아동학대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MBC TV 수목드라마 ‘킬미, 힐미’ 팬들이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4일 MBC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개설된 ‘킬미, 힐미’ 갤러리(페이지)에서 활동하는 팬들이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소액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누리꾼이 지난날 26일 ‘킬미, 힐미’ 갤러리 이름으로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모금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고 여기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헌성 댓글을 달면서 모금 운동이 본격화됐다.

MBC측은 “모금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7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모였다”면서 “팬들은 10일까지 모금해서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출자인 김진만 PD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팬들의 기부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종영까지 4회를 앞둔 ‘킬미, 힐미’는 주인공 차도현(지성 분)



과 오리진(황정음이)이 과거 오리진이 끔찍한 아동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버벌진트 ‘마이 타입’ 표절 논란

“장르만 같을 뿐 별개의 노래” 반박

래퍼 버벌진트(본명 김진태·35)가 자신이 작곡한 ‘마이 타입’(My type)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자 “장르가 같을 뿐 완전히 다른 별개의 노래”라고 4일 반박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버벌진트가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 출연자 제시와 치타를 위해 만든 ‘마이 타입’이 파스타 오마리온의 ‘포스트 투 비’(Post to be)와 도입부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버벌진트의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마이 타입’과 ‘포스트 투 비’는 둘 다 최근 미국 음악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흑인음



악 장르인 ‘래치’(Ratchet·트랩에 이어 유행한 힙합 장르로 미니멀한 비트가 특징)이란 장르”라며 “두 곡을 비교해 들으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멜로디와 구성, 코드 진행, 악기 편성 등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노래”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앨범까지 뒤로 미루면서 이번 작업에 매진한 버벌진트 곡이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연습뉴스